

MDS테크놀로지(086960)

김동준 (02) 3772-1543

kdjsteel@goodi.com

임베디드 S/W 전문업체로 고성장과 함께 고수익성 지속

(억원)	매출액	영업이익	경상이익	순이익	EPS (원)	PER (배)	PBR (배)	자본금	30.5 억원
								주가 (9.26):	13,000 원
2004.12	232.4	64.6	67.0	50.2	1,208	10.8	3.68	주주구성	최대주주 외 10인 57%
2005.12	281.7	69.2	73.2	57.1	1,231	10.6	3.03		공모전기관 3사 5%
2006.06	148.9	34.6	40.3	31.7	-	-	2.82		우리사주 8%
시가총액	: 793 억원(액면가 500원)						유동주식수	: 2,378 천주	
매출구성(06.6)	: 임베디드 S/W개발솔루션 58.8%, S/W솔루션 28.0%						금융비부담률(06.6)	: 0.1 %	
수출비중(06.6)	: 3.6%						부채비율(06.6)	: 28.8 %	
* 본 자료는 MDS테크놀로지 사업설명서에 근거한 것임.							공모주식수(20.2%)	: 1,230 천주	

■ 개발솔루션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임베디드 S/W 전문업체

1994년 설립된 동사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(S/W) 전문기업으로 주력 제품별 독보적인 점유율을 바탕으로 뛰어난 수익성을 구가하고 있다. 즉, 동사는 임베디드 개발솔루션(통합개발/설계자동화/시험자동화)과 S/W솔루션(애플리케이션/OS)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통합개발솔루션으로 휴대폰/정보기기/자동차용 S/W의 오류검색을 하는 TRACE32(세계 1위 업체인 독일 라우트바 제품을 커스터마이징, 2005년 매출비중 60.1%)의 경우 국내시장의 80%를 점유하고 있으며 설계자동화솔루션(독일 dSPACE 제품을 커스터마이징, 자동차/항공/로봇)과 시험자동화솔루션(휴대폰/정보기기)도 각각 38%, 47%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. 또한 동사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(MMS/카메라), 지상파DMB 데이터방송 S/W, 임베디드 OS(운영체제) 등의 다양한 임베디드 S/W솔루션사업도 영위하고 있다. 2005년(2006년 사업목표)기준 동사의 거래처는 650여개사(800여개사)이며 거래처별 매출 비중은 삼성전자 32%(30%), LG전자 19%(16%) 등이고 적용분야별 매출비중은 휴대폰 55%(42%), 자동차 3%(10%), SoC(System on Chip) 6%(9%), 정보기기(DTV/홈서버/PDA) 1%(7%), 전자제품 6%(5%) 등이다.

■ S/W솔루션부문의 급격한 성장을 바탕으로 고성장 및 고수익성 지속 전망

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30.0%의 고성장을 기록했던 동사는 거래처 확대와 함께 자동차, DMB 등 유망 시장으로 적용분야를 다변화하며 2007년까지 연평균 31.2%의 높은 외형성장을 기대하고 있다. 즉, 주력제품인 개발솔루션분야의 안정적인 성장(2004년 211억원, 2005년 228억원, 2006년E 241억원, 2007년E 295억원)과 S/W솔루션부문의 급격한 성장(2004년 13억원, 2005년 30억원, 2006년E 60억원, 2007년E 105억원)을 통해 동사는 2006년(2007년)에 매출액 372.0억원(485.0억원), 영업이익 91.2억원(120.8억원), 영업이익률 24.5%(24.9%), 순이익 73.0억원(96.9억원)을 목표하고 있다. 참고로 동사의 사업목표에 근거한 공모가기준 PER은 2006년 9.3배(2007년 8.2배) 수준으로 valuation상 공모가는 매력적인 것으로 판단된다.

■ 다양한 디바이스로 적용범위 확대 추이 주시, 거래개시 직후 유통주식수는 19.4%로 작은 편

디지털 컨버전스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는 임베디드 S/W는 자동차, 국방, 항공, 지능형로봇, DMB 등으로 적용범위가 급격히 확대되며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성장분야에서의 매출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. 다만 주력제품의 경우 세계 유수의 제품을 수입하여 커스터마이징(customizing) 하고 있는 관계로 자체개발 S/W비중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이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극복해야 할 점이다. 한편 발행주식총수 610.0만주 중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347.6만주(1년, 이하 보호예수/의무보유)와 우리사주 46.5만주(공모 24.6만주, 1년, 공모전 21.9만주, 3개월), VC 3사 32.2만주(공모전, 1개월, 전환우선주 15.6만주 포함), 기관 65.7만주(공모, 1개월 50.7만주, 2개월 15.0만주)를 감안할 경우 유통주식수는 거래개시 직후 118.0만주(19.4%), 1개월과 2개월 경과 후 200.9만주(32.9%), 216.0만주(35.4%)이다.

* 주간사는 교보증권입니다.

* 본란은 신규상장기업에 대한 소개를 위한 란이며, 매수추천이나 투자를 권유하는 의미가 아닙니다.